

나주 마을버스 개편 “환승없이 영산포까지 한 번에”

18일 시행 목표... ‘11-15번’ 마을버스 연장 운행 다시·문평·세지·봉황면 권역은 내달 중 보완 추진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에 따라 처음 시도된 마을버스 환승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 교통 복지 증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환승 없이 시내권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갖고 ‘대중교통 환승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대화를 통해 223개에 달하는 기존 버스 노선의 중복 운행과 이용객 및 운송 수입 감소, 인건비·연료비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

액, 서비스 불친절 등 대중교통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노선 개편 정책 추진 배경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노선 개편 정책 중 급행버스·빛가람동 콜버스 도입, 운행 횟수 증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마을버스 도입으로 인한 환승 불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왔던 ‘2차레 노선 조정’과 ‘100원 택시 이용권 추가 지원’, ‘무료 환승 시간 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의 교통 복지를 최우선 한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마을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환승 없이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대중교통 노선개편으로 도입된 마을버스 환승 체계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달 18일 시행을 목표로 동강·공산·왕곡·반남면 권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11-15번 노선을 영산포와 나주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운수회사인 나주교통과 차량 배차 시간·노선 조정 등 세부 운행 계획을 검토하고 다시·문평·세지·봉황면 권역 등도 4월 중 노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병태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TF팀을 구성해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 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노선 개편과 무관하게 나주 교통에서 적자 발생을 이유로 광역 버스 160편을 28대에서 10대로 감차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버스 증차를 사측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나주=정준환기자

완도군,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 돌입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 보고회서 추진상황 점검

완도군이 올해 군에서 열리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개 체육 행사 개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6-17일 ‘제19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9월 26-27일 ‘2024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월 18-20일 ‘제36회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완도군에서 열린다.

군은 최근 신우철 군수 주재로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3개 체육 행사 준비 상황 보고, 문제점, 개선 사항, 부서 간 협업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

특히 각 경기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기 지원 요원으로 공무원·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점 식품 안전 특별 대책, 숙박업소 요금 사전 조사·신고 등 부당 요금 근절 대책,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청해진스포츠클럽 인건 부대 행사장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마련하고,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제2회 전남도 체육대회와 제3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3개 체육 행사가 전남도민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줄 장이 되는 물론, 성공 개최로 완도의 위상을 드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김산 무안군수, 산림공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오룡 기후대응 도시숲 등 6개 공원 의견 수렴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산림공원 주요사업장을 둘러보며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대응 도시숲 등 산림공원 6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조성·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 추진 전반을 살폈다.

김산 군수는 지난해에 조성된 ▲무안읍 성동저수지 생태플랫폼 ▲오룡 기후대응 도시숲 ▲남양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방문해 수목 생육상태, 보행 동선,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상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인 일로읍 백련길 기후대응 도시숲, 남악철

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로 예정된 오룡지구 하수종말 처리장 옆



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동지 수변 생태문화 공원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좋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청자축제기간 강진사랑상품권 이벤트 효과 ‘톡톡’

투자 대비 6배 소비 촉진...축제장·읍내상권 ‘원원’

강진군이 ‘제2회 청자축제’ 기간 동안 진행한 ‘강진사랑상품권 나눔 이벤트’ 배부액이 1억6천300만원을 돌파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2회 청자축제’ 기간 동안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축제장과 강진읍 시장에서 실시, 강진사랑상품권 나눔 이벤트 배부액이 1억6천300만원을 돌파해 9억6천만원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제 기간 10일 동안 당일 소비한 카드 영수증 금액

에 따라 5만원 이상부터 20만원까지 소비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로 1인당 1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한 영수증은 제외됐다.

축제기간인 10일간 5천775건의 참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청자축제장이 6천200만원 (38%), 강진읍시장은 1억1천만원 (62%)으로 읍시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축제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강진읍내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영수증 지출액은 합산 결과 9억6천만원이었으며 이는 배부액 1억6천300원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투자 대비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가 높았다.

이벤트에 참여자들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강진군민 52%, 전라(강진제외) 22%, 광주 13% 순으로 강진군민과 인근지역 관광객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영수증 소비자 분석 결과, 1위는 단돈 구매 (식품, 물품 등) 28%, 2위는 식당 24%, 3위는 도자기 구매 23% 순으로 차지해 축제의 여파를 축제장에서부터 강진읍까지 연결하고 나아가 도자기 구매율이 3위에 올랐다는 점은 성공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여실히 인证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영암군, 삼호읍 ‘콜버스’ 도입

탑승 30분 전 예약...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암군은 택시처럼 호출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사진>운행을 도입했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삼호읍에서 민선 8기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콜버스 운영을 시작, 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콜버스는 택시처럼 편리하고 버스처럼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에게 수요 맞춤형 접근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군이 삼호읍에 콜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불산 단과 각급 학교가 있는 삼호읍은 출·퇴

근·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반면, 오후에는 이용률이 낮아 노선·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암 콜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기존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오후에는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승객들의 이동을 책임질 계획이다.

성인 1천원, 유아·초·중·고 학생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기 30분 전에 콜센터(1533-0777)나 스마트폰 앱 ‘서클’로 예약할 수 있다.

타는 곳과 내릴 곳을 정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오후 7시30분 이후에는 예약할 수 없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꿈의학교 임원선거 실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 실현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11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의학교가 최근 하당청소년문화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임원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진행된 임원선거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으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 하기 위해 실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도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바른 선거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선구적으

로 교육했다. 이날 임원선거에 참여한 이아은 청소년(목암중2)은 “기성세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임원선거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으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 하기 위해 실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군 ‘청년 두드림 옷장 사업’ 추진

관내 청년 구직 활동 무료 정장 대여

해남군은 11일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두드림 옷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청년 두드림 옷장은 청년들이 구직 면접 시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청년두드림센터를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품목은 재킷, 바지, 치마로 구성, 해남청년두드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이즈와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대여를 희망할 시 자신이 응시

한 면접 일정·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 메시지·이메일 등)를 제출하면 된다.

대여는 5일 동안 가능하며 정장 반납 <해남=박필용기자>



은 택배·대리 반납이 아닌 직접 반납하고, 반납된 정장은 센터에서 깨끗이 세탁해 청년들에게 다시 대여한다.

관내 청년(18세 이상·49세 이하)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시간(주중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기자